

개인이 소유한 의복디자인 특성 분석을 통한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 방법 개발 - 형태 분석법을 중심으로 -

이현정·최윤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Personal Style Analysis and Fashion Coordination Method Applied by the Method of Morphological Analysis

Hyun-Jung Lee and Yoon-Mi Choi^{*}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12. 13. 접수; 2008. 10. 31. 채택)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lothes that each person owned by applying morphological analysis, one of the creative conception technique and suggests a way that person owned on clothes through better fashion coordination according to personal style chan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below. Firstly, we could draw a successful fashion coordination technique by compounding solutions classified by each important variable totally through morphological analysis. Second, we suggested a personal style analysis technique that is systematic and visual through morphological analysis. Third, we could draw a various fashion coordination technique by mixture of partial solution for important variables in short time, and concluded that it is helpful to idea quest to emphasize personal individuality in shopping. Finally a study on program development that can do expansion of fashion coordination efficiently in submitting a morphological analysis table should continue.

Key words: morphology analysis(형태 분석법), fashion coordination(패션 연출), creative idea technique(창의적 발상기법).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패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자 감성이 세분화, 첨단화됨에 따라 개성 있는 연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옷을 구매하여 개성있는 차

움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조합하여 새롭게 연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자신의 의복 연출을 정확히 분석하여 새로운 시도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패션 연출이란 패션 코디네이션이라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통한, 조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패션 연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

이 논문은 2007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지자 E-mail : ymchoi@cnu.ac.kr

로 색체의 배색법이나 약세사리의 선택법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이나 미적인 조화와 의상 연출의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서, 디자이너나 교육자를 위한 패션 연출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연출이 패션 아이템의 통합, 조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패션 아이템의 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조적 발상기법인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디자인 특성과 패션 연출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인 스타일의 변화를 제안하고 기존의 의복을 이용해서 연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을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적용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며, 브랜드에서 신상품의 다양한 패션 연출을 제안하는데 이 방법이 활용되어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조합하여 제품이 지닌 연출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창의적 발상법 중에서 형태 분석법을 사용하여 패션 연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예술서적, 복식서적, 디자인 문헌, 정기간행물, 기타 국내외 논문,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문헌 고찰을 하였으며,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30대 초반의 여성 1인의 2006년 봄, 여름에 소유하고 있는 옷을 바탕으로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착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복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둘째, 형태 분석법을 통해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디자인 특성과 패션 연출 스타일을 분석하여 개인 패션 연출 스타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형태 분석법을 통한 패션 연출 방법을 실제

로 적용하여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II. 패션 연출과 창의적 발상법

1. 패션 연출

1) 패션 연출의 개념

패션 연출이란 패션 코디네이션을 말하며, '코디네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착용·기능의 일치·조정'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다. 회의나 토론장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견제하고 조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이끄는 사회자가 있는데, 이를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럴 경우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을 코디네이션이라고 한다. 단순히 물건을 조합하는 것에서부터 상황을 조합하거나 사건을 조합하는 것을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저 단순한 조합이거나 아무렇게 섞어 놓은 혼돈이나 혼란 상태를 코디네이션이라 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복잡한 조합에도 미적 가치와 창조적인 감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코디네이션이란 말이 패션 용어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패션 분야에서 도입하여 사용한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¹⁾.

패션 연출에서 이미지는 의복 착용자로부터 느껴지는 일정한 타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착용자의 외적 특성, 내적 특성, 의복과 액세서리, 배경 등과 같이 착용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지각자나 착용자에게 복합적인 것이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타임을 결정하는 개성적 특성으로 외적, 내적 특성의 내용이 형용사나 어떤 묘사적 용어로 표현되어 진다. 즉, 날씬한-뚱뚱한, 부드러운-예리한, 열대강스한-매니쉬한 등과 같이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 보고 의복의 이미지, 액세서리 이미지를 통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 연출은 혼련에 의해 자신

1) 양성모, *동아 프라임 영한 사진*, (서울: 두산동아, 1993), p. 11.

2) 이승림, 송병건,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권 8호 (2000), p. 130.

의 외적, 내적 이미지를 먼저 찾아보고 의복과 액세서리를 결합하여 이미지 연출에 대한 테크닉을 기를 수 있다³⁾.

2) 패션 연출 요소

패션 연출의 요소는 착용자, 의복, 소품으로 볼 수 있고, 각 요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착용자

착용자의 이미지는 착용자의 얼굴, 머리, 체형 등과 같은 신체적인 특성과 역할 특성에 따라 창출될 수 있다⁴⁾. 효과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화장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과 같은 착용자 요소에 따른 이미지 차이도 파악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복 연출 방법 전개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은 제외하고자 한다.

(2) 의복

의복은 디자인의 요소(선, 색채, 재질)에 의해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의복들의 품목을 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성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의복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 색, 재질이 하나의 형태로 인체 위에서 연출된다. 연출기법으로 의복끼리의 조합, 의복과 비움, 색상 조합, 재질 조합, 디자인 조합, 이미지와 테마를 조합하여 연출하는 것⁵⁾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아이템의 조합에 의한 패션 연출 방법을 다루었다.

(3) 소품

소품은 신발, 핸드백, 팔찌, 브로치, 안경, 시계, 장갑, 양말, 스타킹, 스카프, 머플러 등 착용자의 신체에 걸치는 의복외의 용품을 말한다. 소품은 의복과

함께 착용자나 의복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머리에서부터 구두까지 전체적인 조합을 연출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⁶⁾으로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액세서리 등이 조화를 이루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이때 착용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간의 조화, 의복이미지나 디자인 요소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토탈 패션은 연출의 마지막 분위기를 액세서리로 정리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소품을 기타 액세서리로 분류하였고,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옷의 아이템 조합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소품의 연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3) 패션 연출 분류

패션 연출은 크게 이미지, TPO, 체형에 따른 패션 연출로 분류된다⁷⁾. 이미지에 따른 패션 연출은 클래식한 이미지, 모던 이미지, 캐주얼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 내추럴 이미지, 엘레강스 이미지, 매니쉬 이미지로 분류되며, TPO에 따른 패션 연출은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따라 패션 연출을 한다는 원리로 자유스러운 사고와 개방된 사회에서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TPO에 따른 적당한 의복의 선택과 개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⁸⁾. 또한, 체형에 따른 패션 연출은 전체 비만형, 상체비만형, 하체비만형, 키가 작고 마른형, 키가 크고 마른형 등으로 구분되며, 자신의 체형에 맞게 패션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옷의 연출법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패션 연출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2. 창의적 발상법

창의적 발상기법은 사고의 이론과 발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험에 의한 창조성 개발기법들이 고찰되어 왔는데, 그 종류는 사고 이론이나 발상의 원리만

3) 허갑섭, 이병화, “패션 연출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1999), p. 56.

4) 이은미, 강혜원, “의복 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 197.

5) 허갑섭, “패션 코디네이션,”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집 (1988), p. 46.

6) 허갑섭, *Op. cit.* p. 47

7) 신혜원, 최선형, 이정순, 이정옥, 김희라, *의복과 현대사회*, (서울: 신정, 2003), p. 179.

8) 신혜원, 최선형, 이정순, 이정옥, 김희라, *Op. cit.* pp. 181-182.

큼 다양하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법들 중에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발상기법은 시대틱스⁹⁾, 체크리스트법¹⁰⁾, 스캐퍼¹¹⁾, 형태 분석법¹²⁾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옷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자의 패션 연출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 변수의 가능성을 정렬하여 형태적으로 배열해 보아 가능한 조합을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하던 패션 연출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션 연출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어떤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수의 가능성을 정렬하여 형태적으로 배열하여 가능한 조합을 모두 생각해 보는 발상법인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시각적으로 패션 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형태 분석법을 이용한 의복 디자인 특성 분석

1. 패션 연출 방법 개발을 위한 형태 분석법의 적용

형태 분석법(Morphology Analysis)은 California 공과대학의 Fritz Zwicky 교수가 고안해 낸 것으로 분석적 문제 해결의 기법이다. Morphology의 원래 의미는 형태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 해결책을 형태적으로 파악하는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어떤 물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수의 가능성을 정렬하여 형태적으로 배열하여 가능한 조합을 모두 생각해 보는 발상법이다¹³⁾.

패션 연출에 있어서도 형태의 유형에는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 드레스류, 기타 악세사리 등이 존재한다. 패션 연출방법에 있어 형태 분석법은 이들

형태를 기본으로 어떤 부분과 부분의 조합을 해보므로 새로운 연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연출 방법 연구에 있어서 먼저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옷의 아이템의 요소들의 분석이 요구된다. 형태 분석법에 의한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패션 연출의 형태를 이루는 주요 아이템 분류

패션 연출에 형태를 이루는 주요 아이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파악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패션 연출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착용자, 의복, 소품으로 나눌 수 있으나¹⁵⁾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연출 방법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착용자의 특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 1>은 패션 연출을 이루는 요소로 Mary D. Tranquillo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용어집¹⁶⁾’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 아이템을 주요 변수로 하였다.

<표 1> 패션 연출을 이루는 요소

패션 연출을 이루는 요소 (아이템, 주요 변수)	종류 (부분적 해결안)
상의류	블라우스, 셔츠, 스웨터, 베스트, 가디건, 볼테로 등
하의류	스커트, 팬츠 등
외의류	코트, 자켓 등
드레스류	드레스
기타 악세사리	아플리케, 넥웨어, 주얼리류 등

- 9) Gordon은 일종의 강제 연상법으로 4가지 유추적 사고 즉, 의인적 유추(Personal Analogy), 직접적 유추(Direct Analogy), 상징적 유추(Symbolic Analogy), 공상적 유추(Fantastic Analogy)를 전개하였다.
- 10) Osborn이 다시 구체화한 실용적인 설문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아이디어가 없다고 느낄 때, 생각을 확장시켜 이전에 도출된 대안에 관련된 다른 대안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낼 때 이용된다. Osborn 질문 리스트 핵심동사는 put to other use, modify, magnify, minify, substitute, rearrange, combine이다.
- 11) 스캐퍼는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Eberle가 7가지 질문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성문제를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eliminate, rearrange 또는 reverse로 변형시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도와주는 체크리스트 기법의 하나이다.
- 12) California 공과대학의 Fritz Zwicky 교수가 고안해 낸 것으로 분석적 문제 해결의 기법이다.
- 13) 박화순, 창조성개발기법. (서울: 형설출판사, 1985), p. 107.
- 14) 김미영, “의상 연출학의 개념 정립,” 한국외국어학회지 20권 6호 (1996).
- 15) Mary D. Tranquillo. 한의원 역, 패션스타일에 관한 용어집. (서울: 경춘사, 1991), pp. 9-96.

2) 각 아이템의 부분적 해결안을 파악하여 형태분석표 작성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옷을 기준으로 형태 분석표를 작성한다. 주요 변수는 패션 연출을 이루는 요소로서 상의류, 하의류, 의의류, 드레스류, 기타 악세서리류의 아이템으로 구분하였고, 부분적인 해결안은 전체 해결안을 구성하는 '요소적 해결안'을 말하며, 패션 연출의 조합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다. 주요 변수를 좌측열에 위치시키고 각 변수별 부분적 해결안은 변수별 행에 소유하고 있는 옷을 사진으로 찍어 무작위로 나열한다. 부분적인 해결안에서 각각의 아이템은 Mary D. Tranquillo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용어집'¹⁶⁾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때 부분적 해결안이 시각화 될 수 있도록, 한글

프로그램에서 표를 작성한 후 각 아이템을 사진을 찍어 배치하므로 시각적으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표 2>가 그 예이다.

3) 각 주요 변수별 부분적 해결안을 조합하여 전체 해결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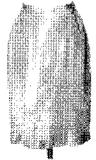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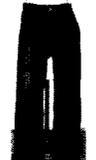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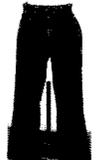
전체 주요 변수별 해결안을 조합해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패션 연출 방법에서 벗어나 형태분석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조합해봄으로 기존의 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표 2>는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옷 중에서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중복되는 스타일을 제외하고 코디내이션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형태 분석표이다.

<표 2> 패션 연출을 위한 형태 분석표

변수	부분적 해결안 (Sub-solution)							
	a	b	c	d	e	f	g	h
1. 블라우스								
2. 셔츠								
I. 상의류 3. 스웨터								
4. 가다건								
5. 볼레로								

16) Mary D. Tranquillo, *Op. cit.*

〈표 2〉 계속

변수	부분적 해결안 (Sub-solution)								
		a	b	c	d	e	f	g	h
II. 하의류	1. 스커트								
	2. 팬츠								
III. 외의류	1. 자켓								
	2. 코트								
IV. 드레스	1. 드레스								

2. 분석 대상자 소유 의복의 디자인 특성 분석

분석 대상자가 2006년 봄, 여름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옷을 바탕으로 옷의 특성과 개인 패션 연출 스타일은 분석 대상자 인터뷰와 형태분석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으며, 개인 스타일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1) 선호 형태 분석

(1) 선호 실루엣 분석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대부분이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이고, 변수별 실루엣 선호를 살펴보면, 상의류는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넥라인

은 브이 넥라인이 24개, 기타 넥라인이 8개로 다른 넥라인에 비해 브이 넥라인이 많으므로 쇼핑 시에 브이 넥라인 이외의 다양한 넥라인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의류에서 스커트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스트레이트 스커트 4개, 플레어 스커트 7개, 웨그 스커트 1개, 서클러스커트 1개임을 알 수 있었고, 스커트의 길이는 주로 미디(midi) 길이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의류 중 볼레로와 가디건은 다른 품목과 코디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드레스는 A라인 드레스와 스트레이트 라인 드레스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쇼핑 시에 볼레로나 가디건과 연출하기 쉬운 쉬스드레스나 선드레스를 구입하면 새로운 패션 연출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2) 변수별 선호 아이템 분석

분석 대상자가 상의류에서 선호하는 아이템은 스웨터(15개), 블라우스(11개), 셔츠(10개), 가디건(7개), 블레로(4개) 순이었고, 베스트는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의류에서는 스커트(12개)가 팬츠(8개) 보다는 많았다. 외의류에는 코트(2개)에 비해 자켓(9개)이 많았다. 드레스(2개)는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기타 악세사리 사용도 거의 네웨어가 주를 이루며, 넥웨어도 비슷한 계열의 색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같은 소재로 구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패션 연출의 포인트가 되는 악세사리 구입시 다른 소재, 다른 색상, 다른 스타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품목 중 베스트와 드레스가 거의 없으므로 쇼핑 시에 이 아이템 활용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연출을 시도할 것을 권할 수 있으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어플리케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더 성공적으로 패션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 선호 무늬 분석

상의류와 드레스류에서 무늬 없음 (39개)>줄무늬(4개)>꽃무늬(2개)>영문로고 프린트(3개)>기타(1개) 순으로 무늬가 없는 옷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의류에서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옷의 무늬는 무늬가 없는 것이 주를 이루며, 무늬가 있는 경우는 스트라이프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다양한 무늬 스타일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할 수 있었다.

3) 선호 색채 분석

분석 대상자의 악세사리를 제외한 소유하고 있는 색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검정(14개)>흰색(8개), 파랑(8개), 아이보리(8개)>회색(6개)>갈색(4개)>노란색, 남색, 보라(각 3개)>황토, 하늘, 초록(각 2개)>분홍, 다홍, 연두, 주황(각 1개)

분석 대상자는 주로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채색 중에서도 검정색이 가장 많았다. 또한, 단색보다는 한색 계열의 옷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쇼핑 시 화사한 레드, 핑크 계열의 아이템을 구입한다면 다른 이미지로 변화가 가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IV.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 방법 개발

1. 형태 분석법에 의한 분석 대상자의 패션 연출 방법 분석

형태 분석법에 의해 분석 대상자가 2006년 5월 한 달간 사용한 해결안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자가 변수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해결안

상의류에서 블라우스는 I-1-g, 셔츠는 I-2-f, 스웨터는 I-3-f, 가디건은 I-4-e, 블레로는 I-5-d 였다. 하의류는 스커트는 II-1-h, 팬츠는 II-2-f, 외의류는 5월 한 달 간만 사용한 해결안으로 해당되지 않았다. 드레스와 기타 악세사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변수 별 가장 많이 사용한 해결안 분석 시 분석 대상자는 블레로의 한 가지 해결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채색의 색상을 선택하여 조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모던하면서 심플한 스타일의 해결안을 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변수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해결안

상의류 중 블라우스는 I-1-e, I-1-f, I-1-g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셔츠는 I-2-b, I-2-e, I-2-g를 제외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스웨터는 I-3-b, I-3-f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조합하지 않았다. 가디건과 블레로 역시 I-4-e, I-4-f, I-4-g, I-5-d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의류도 스커트에서 II-1-d, II-1-h, 팬츠에서 II-2-a, II-2-f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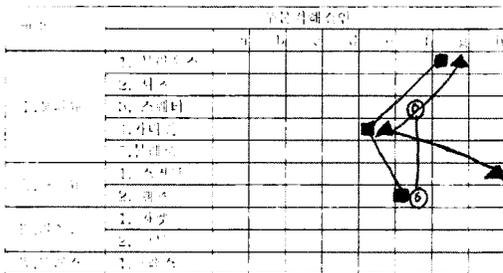
드레스는 검정 스트레이트 드레스 1회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분석해 보면 분석 대상자는 외의류를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옷 71종 중에서 사용한 해결안은 18종으로 25% 정도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해결안을 사용해서 다양한 패션 연출을 시도 볼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 대상자가 한 달 간 가장 많이 조합한 패션 연출 해결안



<그림 1> ■ 표시, <그림 2> ◎ 표시, <그림 3> ▲ 표시.

<표 3> 한 달간 가장 많이 조합한 해결안 형태조합표



분석 대상자가 한 달 간 가장 많이 조합했던 해결안은 <그림 1~3>과 같다. 분석 대상자는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도 주로 무채색의 무난한 스타일의 조합(표 3)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선호 이미지 분석

형태 분석법에 의해 분석 대상자가 5월 한달 간 외출 시 조합한 해결안을 빈도로 분석해 본 결과, 모던 이미지(10회)>내추럴 이미지(7회)>클래식 이미지(3회)>캐주얼 이미지(2회)>로 로맨틱 이미지(1회)로 모던 이미지와 내추럴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형태 분석법을 적용한 패션 연출 방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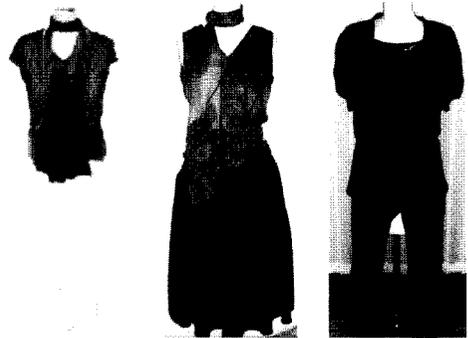
분석 대상자가 5월 한달 간 적용한 연출 방법은 대부분이 모던이나 내추럴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이미지 연출 방법 제시를 위해 전문가 그룹 5인이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조합된 패션 연출 방법의 해결안 10개를 선별한 후 분석 대상자가 선택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미지와 TPO에 따른 패션 연출 방법 제시 역시 전문가 그룹이 항목별 5개를 선별 후 분석 대상자에 의해 선택된 한 개의 예를 제시하였다.

1) 형태 분석법에 의해 의외의 결과를 도출한 패션 연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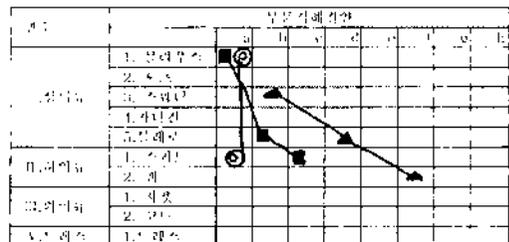
전문가 5인은 분석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해결안 중 의외로 멋스럽게 연출된 해결안 10개를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 분석 대상자가 선택한 3가지 방법(표 4)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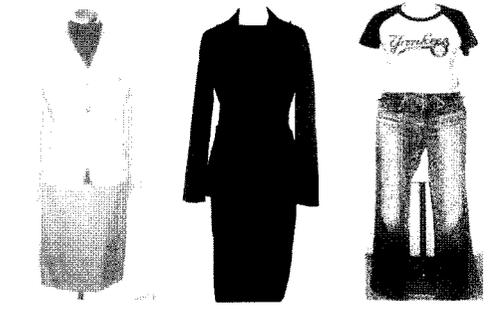
- (1) 패션 연출 1: I-1-a, I-5-b, II-1-c: 형태분석표에서 ■ 표시(그림 4)
- (2) 패션 연출 2: I-1-a, II-1-a: 형태분석표에서 ◎ 표시(그림 5)
- (3) 패션 연출 3: I-3-b, I-5-d, II-2-f: 형태분석표에서 ▲ 표시(그림 6)



<그림 4> 패션 연출 1. ■ 표시. <그림 5> 패션 연출 2. ◎ 표시. <그림 6> 패션 연출 3. ▲ 표시.

<표 4> 의외의 결과를 도출한 해결안의 형태조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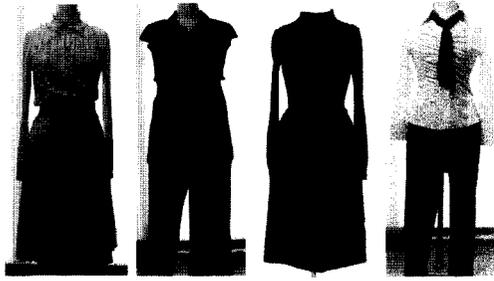




<그림 7> 클래식 ■ 표시. <그림 8> 모던 ◎ 표시. <그림 9> 캐주얼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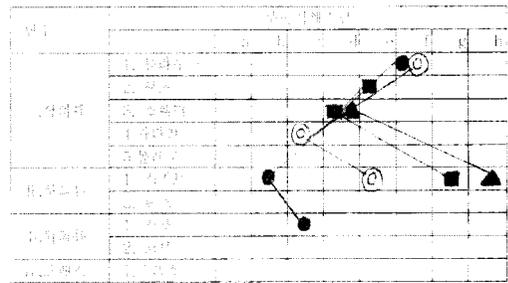


<그림 14> 직 장에서 일 할 때. <그림 15> 파 티에 초대 받았을 때. <그림 16> 음 악회, 전시 회 갈 때. <그림 17> 먼 집을 볼 때. 표시. ◎ 표시.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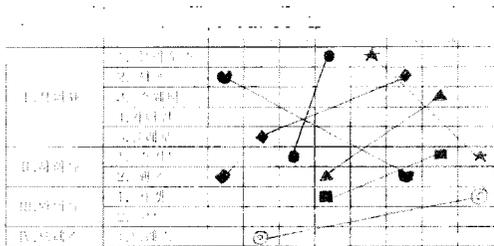


<그림 10> 로맨틱 ● 표시. <그림 11> 내추럴 ◆ 표시. <그림 12> 엘레강스 ★ 표시. <그림 13> 매니쉬 ♥ 표시.

<표 6> TPO에 따른 패션 연출 방법 형태분석표.



<표 5> 이미지에 따른 패션 연출 방법 형태분석표



2) 이미지에 따른 패션 연출 방법 제시

<그림 7~13>과 <표 5>는 이미지에 따른 새로운 패션 연출 방법의 제시이다.

3) TPO에 따른 패션 연출 방법 제시

<그림 14~17>과 <표 6>은 TPO에 따른 새로운 패션 연출 방법의 제시이다.

<표 2>의 패션 연출을 위한 형태분석표를 바탕으로 소유 의복에 대한 시각적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선달을 통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유한 옷을 어떻게 보다 잘 연출 하느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창조적 발상기법의 하나인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옷의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 스타일 변화와 옷을 보다 더 잘 연출해서 입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 분석법을 통해 주요 변수별 해결안을 조합해 봄으로써 평소 습관적으로 하던 패션 연출방법에서 벗어나 기존과 다른 성공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형태분석표를 통해 체계적이고 시각적으로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옷의 특성과 패션 연출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형태 분석법을 통한 착용자 중심의 패션 연출 방법을 제시를 위해 상의류, 하의

류, 드레스류, 외의류 등의 주요 변수의 부분적 해결안의 조합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패션 연출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제, 쇼핑 시 개인의 개성 강조를 위한 아이디어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복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각 개인별 맞춤 패션 연출을 컨설팅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제시된 해결안이 착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패션 연출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태 분석법을 통한 형태 분석표 제시 시 패션 연출 전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영 (1996). "의상 연출학의 개념 정립." *한국의류학회지* 20권 6호.
- 김하림, 유영선 (2002).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창의적 표현방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8호.
- 도주연, 권영숙 (1992). "헤어스타일변화에 따른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6권 3호.
- 박화술 (1985). *창조성개발기법*. 서울: 형설출판사.
- 신혜원, 최선형, 이정순, 이정옥, 김희라 (2003). *의복과 현대사회*. 서울: 신정.
- 이건표 (1987)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대학, 문교부학술연구논문.
- 이송림, 송명건 (2000)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권 8호.
- 이용희 (1984) "패션 산업에 있어서 Fashion Coordinator의 역할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 허갑섭, 이병화 (1999) "패션 연출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